

# 다산포럼

민병욱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의 '청록집' (1946년 출간)은 한국시사(韓國詩史)에 한 획을 그은 시집이다. 일제에 빼앗겼던 토착민은 모국어에 항동적 서정미와 민족적 통을 실어 내놓아 "말라붙은 겨레의 심정을 적셔준(김춘수)" 단비라는 평가를 받았다. 재작년 시집 발간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유종호도 "청록집은 우리 문학의 정전중 하나"라며 "고향과 자연, 행복을 분리하지 않은 청록과 세 시인의 작업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음미해야 할 대목"이라고 찬미한 바 있다.

해방 후 처음 나온 본격 시집으로 애진을 거뒀던 그 책은 그러나 비난도 적잖게 받았다. 주장만 가득한 구호(口號)시를 즐겨 쓰던 이들이 선봉에 섰다. 그들은 조지훈과 박목월이 일찍이 편지로 시를 교환해 농하며 가다듬은 저 유명한 시구(詩句)를 결코 넘어졌다. '깊은 외롭기/남도 삼 백리/술 익는 마을마다/타는 저녁녘'(박목월? '그대' 일부)와 '그대

긴소매 꽃잎에 젖어/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녘이여'(조지훈? '완화집' 일부)를 들먹이며 "지금 인민들은 독립을 달라, 쌀을 달라 아우성인데 밀주가 익는 강마을이나 찾아다니는 시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며 소리를 높였다.

## 책의 수난과 분반(噴飯)할 일

고통 받고 억압 받는 시기, 민중의 삶을 외면한 생활이 없는 시란 애기였다. 딱딱한 구호성 이념에 젖은 그들에겐 술과 강과 노을을 노래한 시인이 시대의식도 없고 그저 밀주에 취해 쓰다니는 한량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런 시가 인민들에게 읽히지 않으면 인민 또한 의식도, 목적도 없이 허허롭게 사는 삶에 안주하고 말 것이라며 격정했을 법도 하다.

자 조지훈은 마침내 한마디를 쓰아붙였다. "참으로 분반(噴飯)하였다." 입속에 든 밥을 내뿜을 정도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시를 시로 읽지 않고 이념이니 목적에 끼워 맞추려고 같잖은 주장을 해대는 행태에 헛웃음 외에 무슨 대꾸가 필요하냐는 거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 중에도 아기는 태어나듯 암흑의 계절에도 방랑은 있다"며 생활을 정치적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려는 비판자들을 몰아쳤다.

'청록집' 후 60여년이 지났다. 그런 요즘, 참으로 분반할 일이 민주화한 나라 대

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장병들의 접근을 봉쇄한다는 얘기가. 불온서적 중에는 출간 후 50만권이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과 세계적 석학과 각종 독서단체가 추천한 필독서도 포함돼 논란을 증폭시킨다. 작가 현기영의 '저상에 순가락 하나'와 석학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이 그런 책들이다.

국방부는 반정부 반미(反美) 반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쓴 책이나 북한 찬양 서적을 장병들로부터 차단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과연 그 책들이 그러하냐는 차치하고 보자. 그렇다면 60년 전 좌익시인들이 청록파에게 왜 같은 구호를 외치지 않느냐고, 자기들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느냐고 비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고 남몰래 저 그 틈 속에 가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행태를 어찌해야 좋을까. 현기영이 오죽하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나 싶어요"라며 쓴웃음을 지었겠는가.

장병 금서(禁書) 명단이 보도된 뒤 그 책들의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난 건 또 한번 분반할 일이다. 그러잖아도 OECD 국가 중 국민 독서율이 가장 낮다는 오명을 듣는 우리나라니 이렇게라도 책 판매가는 걸 올려야 할까. 아니면 상당수 유명작가들이 왜 내 책은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토하는 현실을 깔깔 웃어야 할까. 삼키기도 전에 밥을 모두 뱉어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텐데...

<한국강행물리위원회·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수돗물 '민간위탁' 끝내 강행할 것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수도사업 구조를 바꾼다고 한다. 수돗물 서비스 개선과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수자원공사나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사업의 소유권은 지자체나 정부가 갖되 경영만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다.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사업도 민간에 아웃소싱할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시 등 지자체의 반발은 심각하다. 우선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전 단계로 의식하고 있다.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의 특성상 수돗물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수도사업 구조를 바꾼다고 한다. 수돗물 서비스 개선과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수자원공사나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사업의 소유권은 지자체나 정부가 갖되 경영만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다.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사업도 민간에 아웃소싱할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시 등 지자체의 반발은 심각하다. 우선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전 단계로 의식하고 있다.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의 특성상 수돗물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급하는 수돗물값은 생

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광주는 현재 1당 생산원가 602원보다 74원 싼 528원, 전남은 생산원가 952.4원보다 244.4원 낮은 708원에 공급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도시보다는 농촌,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수돗물값 인상 폭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별 운영에 따른 영세성과 비효율, 중복투자, 주민 불신 등 수돗물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영 효율화보다는 안전한 수돗물을 바라고 있다. 수돗물을 민간위탁했다가 수질 저하와 단수, 요금 인상 문제 등에 부딪쳐 다시 국유화하고 있는 외국 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의 민간위탁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지분 소유를 허용한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 예고하려다가 연기한 적이 있다. 정부는 수돗물이 '경제재'가 아닌 '공공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배'보다 '배꼽'이 큰 농축산물 유통구조

농축산물의 유통구조가 심각히 왜곡돼 있다고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42개 주요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판매가격에서 농가의 몫은 44%인 반면 56%는 유통비용이라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한심한 꼴이 아닐 수 없다.

품목별 편차는 극심하다. 배추·무 등 엽근 채소류의 유통비용이 70.7%로 가장 높고 고추·마늘 등 양념 채소류 61.6%, 장미·국화 등 화훼류 57.7%, 쌀·콩·감자 등 식량작물 55.3%, 사과·배·포도 등 과일류 53.3%,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40.7% 등이었다.

이런 유통구조 아래에선 유통 및 판매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다보니 가격이 거품이 생겨 생산자와 소비자들 피해가 볼 수밖에 없다. 농가는 농가대로 생산비도 건건이 힘들다며 아우성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농축산물 물가가 비싸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농축산물을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상에 내놓으면 유통비 비중이 평균 56.5%지만 농가가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하면 45.0%로 11.5%포인트 낮아졌다. 농가가 유통업체와 직거래하면 도매시장에 넘기는 것보다 21.9% 높은 값을 받고 소비자도 일반 소매점보다 7.7%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해묵은 과제다. 역대 정부마다 유통구조 개선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대 대선 후보 시절 "농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과정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 유통 단계별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도 확대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

### 無等鼓

지난 22일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5.68포인트(1.04%) 내린 1,496.91로 마감했다. 증가 기준으로 1,5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4월10일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처음이었다. 추락의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과 외국인 매도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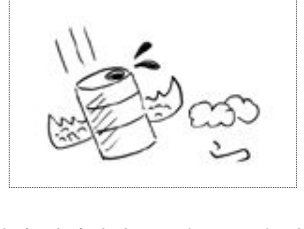
거의 모든 종목이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었지만, 늘 그렇듯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구가하며 재미를 본 종목도 있었다. KT, 가스공사, 기아차 등이 강세를 보였고 한 국가기술산업은 무려 12.7%까지 급등하면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기술산업은 바이오디젤을 비롯해 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이 회사의 '오일 샌드(Oil Sand)' 시험생산 예정소식이 전해지면

시각이었다. 오일 샌드 생산 예정인 현장을 단지 함께 둘러본 것 뿐인데 주가가 무작정 올랐고 보다못해 그들은 결국 '투자계획이 없다'고 진정시켰다. 버핏은 "영화관에 간다고 영화관련 기업을 사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두말할 것 없이 관련주가는 원상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일 샌드는 중질원유를 함유하고 있는 모래나 사암(沙岩)을 말한다. 석탄을 채굴하듯이 노천광산에서 오일 샌드를 캐 파쇄기로 분쇄한 뒤 오일을 추출하거나 생산정에 뜨거운 증기를 주입해 석유성분을 녹인 후 뽑아내는 방식으로 원유를 생산한다. 베네수엘라와 캐나다, 미국 등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생산비용이 높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가가 치솟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당장은 투자를 부인했지만 세계 경제의 미래를 창조하는 이들 선각자들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생산비용이 높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가가 치솟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당장은 투자를 부인했지만 세계 경제의 미래를 창조하는 이들 선각자들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생산비용이 높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가가 치솟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당장은 투자를 부인했지만 세계 경제의 미래를 창조하는 이들 선각자들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일 샌드'

미국 등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생산비용이 높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가가 치솟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당장은 투자를 부인했지만 세계 경제의 미래를 창조하는 이들 선각자들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 최영태

광주시민들은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민들의 이런 비전과 바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곳이 옛 도청 자리이다. 그곳에는 광주항쟁의 대표적 유적지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전당이 들어서실 곳이기 때문이다.

사실 옛 도청 부지처럼 좁은 공간에 5·18사적지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동시에 문화전당을 짓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린 지 이미 수년이 지났고 지금은 설계도까지 완성된 상태이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 5·18사적지의 본류를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사회당 출신 미태당 대통령은 바스티유 감옥을 열고 그곳에 파리를 대표할 오페라 극장을 지었다. 대신 바스티유 감옥의 흔적들(벽돌 등)은 파리 곳곳에 진열시켜 그 정신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화석화된 감옥 터를 대중들이 즐겨 찾는 문화의 광장으로 탈바꿈시켜 더 많은 사람이 일상적 삶 속에서 혁명정신을 공유하게 하자는 것이 미태당의 의도였다. 농성 하시는 분들이 문화전당이 잘 지어져야 5·18도 더욱 빛날 수 있다는 자세로 별관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옛 도청 터는 5·18사적지와 문화전당을 공존시킴으로써 바스티유 감옥 터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문화도시추진단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 알까기 동물세상

### 아기사슴 담비의 휴식

어릴 적 '아기사슴 담비' 이야기를 무척 감명 깊게 읽었다. 어미를 잃은 담비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가나긴 여정을 그린 모험 동화다. 그 당시 정말 새끼 사슴은 무조건 예쁘다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졌다. 그리고 동물원에 와서 해마다 그 예쁜 새끼 사슴들을 무려 5마리 이상씩, 원없이 보게 되었다.

담비 이야기에서 보면 사슴이 모험심 많고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리는 동물로 묘사되지만, 사실 사슴같이 소심한 동물도 없을 것이다. 여러 사슴들을 섞어 놓아도 끼리끼리만 뭉치기 결코 다른 종들과 섞이지 않는 녀석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다.

새끼들이 귀여운 건, 외모뿐만이 아니라 한달 정도 지나면 온갖 장난을 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

다. 네 발을 모두 경중경중 뛰어다니다가, 어른들을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체 나지 않는 뿔로 가상의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동물들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우리 사는 것과 어찌그리 비슷한 것 흠뻑 볼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가 갖지 못한 기막힌 체세포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슴새끼는 얼마 아까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는 동인은 꼭 이렇게 툭 툭 속에 숨어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사람이 다가가면 그때서야 후다닥하고 도망친다.

사슴새끼의 이런 조심성을 조금만 지냈더라 인간세계에서 불쌍한 미아들이 그리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텐데...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옛 도청 별관의 보존문제와 문화전당 조성

훌륭한 문화전당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다행히 문화전당 설계도에는 5·18사적지의 보존을 위해 예쁜 흔적들이 많이 엮여있다. 본관 등 사적지의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다른 문화전당 건물은 지하로 배치한 대신 5·18사적지만 지상으로 배치하여 5·18사적지들이 문화전당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다. 항쟁정신과 문화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쟁의 격전지 중 하나였던 별관의 철거계획은 5·18을 기억하고 또 그 사적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준다. 5·18 관련 단체들이 별관 앞에서 철거를 반대하며 두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필자는 감히 별관의 온전한 보존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프랑수아혁명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의 철거사례를 상기시키고 싶

있다. 문화전당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5·18사적지는 그럴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5·18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광주시민만이 아닌 세계적인 귀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곳이다. 굳이 따지자면 5·18사적지는 문화전당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진 공간이다. 옛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훗날 문화전당의 일부를 철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다시 별관 건물을 복원하려는 주장이 전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추진기획단이 별관의 보존을 주장하는 분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좀더 능동적으로 대안 모색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좀 뒤이지만, 별관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해 그것의 3분의1 정도라도 보존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설계도상 그 정도의 보존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전체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흥사단 회장·전남대 교수>

## 유령집회 신고, 제재 대책 마련해야

관공서나 학교, 회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인 시위' 장면을 흔히 본다. 타인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과 주장을 펼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런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유령집회 신고는 주로 힘있는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현행법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회포를 항의하기 위해 회사 앞인 B공간에서 시위를 하고자 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게 합법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 A업체는 자신들이 고용한 유령 신고자들을 앞세워 먼저 B공간의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홍길동 등은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B공간을 뺏겨버리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특정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중복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지 않으면 집회가 불가능하다. 그런 법적 규정을 악용해 힘있는 기관들이 일당파 고용해서 정당한 집회를 막고 있는 것이다.

집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전한 선진국가의 노사관계라고 볼 수 없는 아비한 수법 일뿐이다.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한 뾰족한 제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같은 장소에 집회를 몇 차례 열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 지역농산물 수도권 관측 후 지자체·농협이 보증

며칠 전 경기도 수원에 갔다가 반가운 장면을 목격했다. 가족들과 함께 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 식당에 '쌀 사랑·농촌 사랑 후원회'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전북 쌀을 이용하는 식당에는 그 액자를 걸어주고 우리 쌀을 이용하는 업소임을 전북 농협이 보증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농협과 힘을 합쳐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쌀을 대도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의 관측활동을 건의한다. 원산지표시제가 있지

만 음식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농협이 이렇게 보증을 하면 소비자들은 믿을 것이고 매출도 늘 것이 아닌가. 농민들은 쌀의 확실한 판로가 생기기 일석이조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입 쌀이 어디로 흘러들어가 팔리는지 모를 정도이지만 주변 음식점 등에서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근데도 보지 못했다. 전북 농협의 사례처럼 우리 광주·전남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김인숙·광주시 북구 북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신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편집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정치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